

“불안한 노후 믿을 건 연금” 광주·전남 ‘추납’ 2배 늘었다

(추후납부)

지난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1만3500건...전년비 76.8% 늘어 ‘반환일시금 반납’ 1만명 육박... ‘임의계속가입’도 증가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에는 노후 불안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지역민이 부쩍 증가했다.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광주·전남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만 1만3500건에 달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광주 6646건·전남 6903건 등 1만3549건으로, 전년보다 76.8%(5886건) 증가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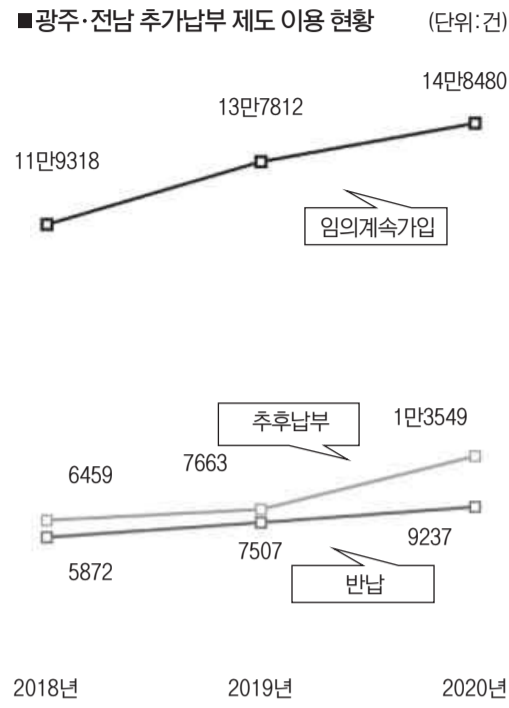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지역민들의 ‘추납’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추납 신청 건수는 2018년 6459건(광주 3127건·전남 3332건)→2019년 7663건(광주 3653건·전남 4010건)→2020년 1만35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추납 신청 금액은 전년의 2.4배(141.9%) 뛰면서 1000억원을 넘겼다. 추납 신청금액은 2018년 352억(광주 177억·전남 176억)→2019년 420억원(광주·전남 각 210억)→2020년 1017억원(광주 518억·전남 499억) 등으로 불어났다.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는 가입자 사이에서는 추납 외에도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되돌려주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일시금에 이자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지역민은 1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반환일시금 반납 건수는 광주 4198건·전남 5039건 등 9237건으로, 전년보다 23.0%(1730건) 증가했다. 광주·전남 반납 건수는 2018년 5872건, 2019년 7507건, 2020년 923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납 금액도 전년보다 30.6%(70억원) 증가하며 298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 동안 반납 금액은 177억원(2018년)→228억원(2019년)→298억원(2020년) 등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며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도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건수는 광주 6만8362건·전남 8만118건 등 14만8480건으로, 전년보다 1만668건(7.7%)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은 2018년 11만9318건(광주 5만4228건·전남 6만5090건)과 2019년 13만7812건(광주 6만2517건·전남 7만5295건) 등 매년 1만건 넘게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내는 평균 월 보험료는 광주 6만7050원·전남 7만1190원으로, 전년(광주 6만6960원·전남 7만740원)보다 소폭 올랐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 광주본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과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이력이 있으면 추납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추납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여주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등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고 금리 우대 받으세요

광주은행,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연 최고 예금 1.05%·적금 2.05% 야구모자 증정 경품 행사도

2021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광주은행이 올해도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내놓았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25일 1호로 가입해 기아타이거즈의 승리와 우승을 기원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네 번째 선보이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매년 인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시 두 달 만에 1만좌 돌파, 출시 석 달 만에 판매한도 2000억원을 소진하면서 증액 판매할 정도로 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상품 가입 실적은 ▲2018년 예금 4904건·적금 7866건 등 1만2770건(판매액 1296억원) ▲2019년 예금 8904건·적금 3938건 등 1만2842건(판매액 2221억원) ▲2020년 예금 1만5833건·적금 1만3203건 등 2만3786건(판매액 299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은행은 이 예·적금 상품을 오는 7월31일까지 판매하며 다양한 금리 우대와 경품 행사를 추진한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다.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 성적에 따라 최대 0.2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아타이거즈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0.05%포인트를 받고, 정규시즌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25일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우승 때 0.1%포인트 한국시리즈 우승 때 0.1%포인트를 받는 방식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정액정리식 상품이다.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고 0.25%포인트)를 제공하는 한편, 우대금리를 최대 0.8%포인트 더해 최고 연 2.0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2020시즌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 가입 고객이 2021년에 재가입하면 0.1%포인트 ▲정규시즌 기아타이거즈의 최장 연속 기록에 따라 최고 0.5%포인트 ▲정규

시즌 팀 승률에 따라 최고 0.2%포인트 등이다. 광주은행은 이 상품에 가입하고 광주카드로 챔피언스필드 홈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IA타이거즈 야구수비 모자를 줄 예정이다.

1호 가입자로 나선 송중욱 행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지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펼치는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주총...주당 1216원 배당 결정

김태욱 상임이사 선임

한국전력이 25일 나주 본사에서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0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 상임이사 선임 등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863억원(연결기준) 흑자를 시현했다. 주주총회에서 2020년 결산 재무제표가 승인됨에 따라 4월 말까지 주당 1216원의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한전은 김태욱(60·사진) 전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전력그리드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본부장은 1988년 한전에 입사한 뒤 계통계획실장, 구리전력지사장, 기술기획처장, 광주전남본부장을 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순천 청·장년층 금융교육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순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최근 사단법인 일미래센터와 금융교육 및 취·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순천 청·장년층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일대일 재무상담을 지원한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뒤 도민에게 금융복지상담과 맞춤형 재무조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3442건을 포함, 총 1만6000여 건 상담을 펼쳐왔다.

센터는 동부(순천 신대지구 전남신용보증재단 5층)와 서부(무안 남악 전남중소기업진흥원 4층) 2곳에 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영광, 광양, 고흥, 무안, 여수, 해남, 구례, 화순, 담양, 순천, 나주 등 11개 지역별 순회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농업인 저리대출’ 출시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저 2%대 금리를 적용받는 ‘백년농업 새희망저리대출’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최근 대촌농협(조항장 분식)을 찾아 출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백년농업 새희망저리대출’은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내놓은 영농자금 저리지원 대출상품이다.

농업인 조합원이라면 최대 5000만원, 2년 기한으로 최저 2%대 금리(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농협은 판매금액 3000억원을 넘기면 판매를 중단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3008.33 (+11.98)
↑ 코스닥	954.99 (+1.17)
↓ 금리(국고채 3년)	1.089 (-0.026)
↓ 환율(USD)	1133.30 (-0.30)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